

“여성도 전문인력...평생직장 의식 가져야”

취업1년생 여사원 ‘직장경험’ 좌담회

대기업들은 작년에 비해 채용인원을 5~15%씩 줄여 뽑을 뿐 아니라 출신대학의 추천으로 20~30%를 충원할 계획이어서 취업의 문은 더욱 좁아졌다. 좁아진 취업의 문 앞에서 더욱 힘들어질 여성취업의 길에 대해 취업 1년생 여사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성취업의 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. <편집자>

사회 =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취업경쟁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분들이라 볼 수 있는데요, 졸업과 동시에 취직하셨으니까요, 취업준비를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입사하게 됐는지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.

졸업전 취업 소모임 만들어

지정희 = 3학년 때부터 도서관에서 모든 일간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습관을 들였어요. **이필행** = 신문은 꿰뚫어 읽은 것이 상식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. 영어 공부는 영어테이프를 사서 듣고 전공은 사법고시 준비하느라 열심히 해둔 셈이었죠.

명정희 = 광고 카피라이터를 하기 위해 4학년초부터 5명이 모임을 만들어 따로 광고공부를 시작했어요.

윤수경 = 사회학과는 3학년 때까지도 취업준비를 하면 나쁜(?) 사람으로 보는 분위기였지요. 맹렬히 비판하던 사회구조 속에 편입돼야 한다는 사실은 정말 참담했어요.

사회 = 주로 공채로 들어간 것 같은데... 시험, 면접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.

이 = 3·4 학년 때 사법고시에 두번 떨어지고 나서 언론계통으로 방향을 바꿨어요. 그런데 신문사, 방송국 시험에도 계속 떨어졌어요. 11월이 지나면서는 완전히 자신감을 잃기도 했습니다. 그래도 일단 지칠 때까지 모든 시험에 도전하리라 마음먹었습시다.

사회 = 국민은행은 당시 여사원을 몇명 뽑았습니까?

백75명을 뽑았는데 여자는 4명 붙었어요.

윤 = 공채였는데도 여성 합격자가 그렇게 적었나요?

지 = 서류전형한 뒤 면접을 치렀습니다. 필기시험은 안 쳤지만 형식은 공채였죠. 상용은 여자를 거의 안 뽑아 왔어요.

이 = 면접에서 결혼하고 계속 일 할거냐고 물어보던데 쌍용은 어땠어요?

지 = 네, 마찬가지로 물어보더

윤 = 4학년 2학기가 되니까 남학생들은 대기업에서 서로 오라고 해서 즐거운 고민들을 하고 있었지만 여학생들은 참 막막했어요. 저는 교수님 친구가 운영 하는 회사에 추천을 받아 들어갔어요. 빨리 취직해야 고향에 안 불려갈 것 같아 서둘러 결정을 했습니다.

사회 = 직장경력이 일년쯤 된 선배로서 취직을 앞둔 후배들을 위해 직장에 들어가서의 갈등이

군요,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에 고민도 많았습니다.

이 = 처음 취직해 지점에서 일할 때였는데 법률관계 사고가 나서 제가 법을 전공했으니까 이러저러하다고 설명을 했더니 다들 언짢아하는 분위기더군요. 여성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불신하고 있었어요.

윤 = 처음 입사했을 때 사장, 여직원, 저 세명이었어요. 그래서 책임있게 일을 배워나갈 수 있리라 기대했어요.

사회 = 무슨 일인데요?

윤 = 오퍼상 일입니다. 그런데

자는 일산·분당 관계 취재라면서는 미장원을 돌아다녀야 했죠. (웃음)

전문영역 넓혀 나가야

사회 = 다들 비판적인 이야기들만 하는 것 같은데, 그러면 각자 어떤 결론을 얻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직장생활을 하는지요?

이 = 일에서 독립적인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외국 연수기회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퇴근시간을 이용해 여학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전공인 법학을 살릴 수 있는 관리부로 가고 싶지만... 꼭 관리부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실력을 쌓으려 합니다.

지 = 동갑이에요. 컴퓨터분야는 개인 능력이 중요하니까요. 지금 많은 일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단계인데, 요즘에는 재학 때보다 훨씬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.

윤 =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. ‘보통여자’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? 슈퍼우먼만 살아남아 ‘잘났어 정말’ 소리만 듣는 거죠.

지 = 그런 면도 있죠. 그렇지만 우리세대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죠. 보통여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...

은행장 되는게 목표

명 = 남자들은 특별히 노력 안 해도, 무능해도, 실수만 안하면 살아남는데 여자들은 특출한 능력을 발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. 직장에 들어가서도 다음 도약단계를 위해 장기계획에 의한 공부가 필요해요.

사회 = 자, 그러면 5년, 10년 뒤의 자신의 모습을 한 번 그려보지요?

명 = 여원사에서 글쓰고 취재하는 능력을 길러 방송원고 쓰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.

윤 =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 보니 저는 취직을 위해 치밀한 계획도 안 했던 것 같고, 현재의 직장을 그만둘 마음이 듭니다.

일동 = (웃음)

이 = ‘아니다’ 싶을 때는 빨리 그만 두는 용기도 필요하겠죠. 그러나 왜 그만두는가를 냉철히 분석해서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
윤 = 일에 대한 보람이 없습니다. 처음에 가졌던 의욕이 자의 반 타의반으로 많이 꺾였어요.

명 = 너무 급하게 직장을 구한 것도 원인이 아닐까요?

지 = 저는 후배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. 9~10월 취업철에 너무 쫓기듯이 직장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.

친구들이 다들 취직하고 나면 취직할 데가 없을 것 같지만, 차근차근 준비해서 내년봄에 재도전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.

사회 = 후배들에게 또 해 주고 싶은 이야기는?

문제점 노조통해 개선요구

명 = 인간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는 훈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

이 = 커피 가져다 달라, ‘미스 아무개’하고 부를 때에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해요. 단 순히 화내기보다는 노조를 통해 요구할 수도 있고 조용히 설득할 수도 있죠. 상사의 부당한 대우에는 적당하게 대처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해요. 태도만은 공손하나 단호하게 처리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.

사회 = 결혼해서도 계속 직장생활을 할 생각입니까?

지 = 물론이죠. 그 생각은 다들 같아요. 남편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예요.

사회 = 그러다가 연애하면 나몰라라 하고 집어치우는 거 아니에요? (웃음) 기업쪽에서도 그래서 여사원에 대한 투자를 손해라고

참석자 △명정희(23) = 여원사 편집국 편집부 기자(성균관대 국문과졸) △윤수경(22) = 성우트레이딩 사원(연세대 사회학과 졸) △이필행(24) = 국민은행 본점 영업부 사원(이

화여대 법학과 졸) △지정희(23) = (주)쌍용컴퓨터 자동화시스템2부(경북대 전자공학과 졸) △사회 = 김미경 기자 <22일 본사·편집국회의실>



명정희씨



윤수경씨



이필행씨



지정희씨

서둘지 말고 적성 살려 차분한 준비를 상사의 부당한 대우 정당한 비판 중요

군요, 원래 소프트웨어 전공이었지만,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뭐든 주어진다면 다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어요. 결혼하고도 계속하겠다고 했죠. 자신있게 일에 욕심을 내는 모습을 보이는 게 면접에서 유리하지 않았나 싶

나 미리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점을 얘기해 봅시다.

월급 4호봉 낮아 실망도

지 = 처음 연수기간 동안 월급이 남자사원보다 엄청나게 적은 것을 보고 무척 좌절했습니다

입사 석달 뒤에 남자사원들이 들어오자 제가 하던 중요한 일을 하나씩 빼 주라는 거예요. 요즘은 영업쪽 일보다는 서류정리 일만 하게 됐어요.

명 = 제 경우 남자사원과 두명이 같이 바쁘게 있는데 저에게는